

보건관리			번호: J - A - 5		
제 목	국문	사망노인 부양가족의 부담에 관한 연구			
	영문	A Study on the Burden of Families Caring Elderly in the Last 6 Months of Life			
저 자 및 소 속	국문	이희나 ¹ , 오희철 ² , 이지전 ³ , 이상욱 ⁴ , 김정인 ¹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¹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² , 건강보험연구센터 ³ ,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⁴			
	영문	Lee Hee Na ¹ , Ohrr Heechoul ² , Yi Jee Jeon ³ , Yi Sang Wook ⁴ , Kim Jung In ¹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¹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² , Health Insurance Research Center ³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Kwondong University ⁴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발표형식	포스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연구 배경 및 목적</p> <p>노인은 개인적으로 신체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만성질환의 유병률 및 사망률이 높아 사회적인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킨다. 우리나라 생애말기 노인환자의 1년간 의료비는 사망시점에 가까울수록 생존노인의 의료비용과 비교했을 때 급격히 증가하며 일반노인보다는 생애 말기 노인들의 의료비지출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노인들의 의료비용 상승은 사회적 의료비용에 대한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우리사회에서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가족 부담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있으나, 실제로 요양 및 의료 서비스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사망 전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가족 부담과 요양 및 의료비용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사망자를 대상으로 사망하기 전까지의 의료비용과 관련하여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확인하고자 한다.</p> <p>2. 방법</p> <p>사망한 65세 이상 노인의 주간병가족을 대상으로 사망 전 6개월(180일) 동안의 의료비용과 가족부담정도를 파악하고 노인과 주간병가족의 특성과 노인의 의료이용수준에 따라 부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생애말기 노인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01년 7월 1일 ~ 12월 31일에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사망 후 장제비를 지급 받았으며, 지역가입자 중 가입주소가 서울지역인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으로 주간병 가족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가 생각하는 총의료비용, 객관적 및 주관적 가족부담에 대한 것 등이다. 가족 부담에 대해서는 사망자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Montgomery 등(1985)이 사용한 객관적, 주관적 부담에 대한 조사도구를 사용하</p>					

였다. 객관적인 부담은 재정적 부담(치료비에 대한 부담, 경제적 여유), 신체적 영향, 가족관계문제, 개인여가시간문제 등 간병인의 개인생활과 집안의 부정적 변화에 대한 9항목으로 조사하였고, 주관적인 부담은 사망자와 간병에 대한 태도와 감정적 반응들에 대한 13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총진료비는 사망 전 6개월 동안 진료기관에서 의료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사망자의 건강보험급여 비용 자료에서 보험급여보험자부담금과 보험급여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총의료비는 간병가족이 같은 기간 동안 사용한 각종 시설 비용, 각종 서비스 비용, 간병 비용, 민간요법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의료비용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금액이다.

3. 결과

총의료비는 중앙값이 30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총진료비는 중앙값이 48만원이었다. 주간병가족은 83.7%가 여자였고, 연령은 평균 57세였으며 월소득은 56.5%가 150-300만원미만이었다. 6점 척도로 측정된 객관적 부담은 평균 4.98, 주관적 부담은 3.35로 주관적 부담보다 객관적 부담이 더 높았다. 고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재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보다 재산이 2,000만원-1억원미만일 때 객관적 부담이 유의하게 높았다. 고인의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연령 증가와 함께 주관적 부담도 높았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생애말기 노인환자를 돌보는 가족부담에 영향요인으로는 객관적 부담은 '사망자연령, 사망자재산, 주간병가족월소득, 총의료비'였고 주관적 부담에서는 '사망자연령, 주간병가족월소득, 총진료비'였다.

4. 고찰

노인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에 있어 총진료비 등 의료비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이를 통해 노인의 사망 전 의료 이용이 보험권내의 의료기관에 대부분 집중되며, 총진료비와 총의료비는 부양가족의 주관적, 객관적 부담에 주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생애 말기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 부담을 연구한 최초의 연구이다. 기존의 여러 질병별 간병가족의 부담감 연구들이 단순한 부담감 측정에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총의료비, 총진료비의 비용적 측면 등 생애 말기 노인환자의 의료이용과 관련된 측면을 고려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